

무주 치목마을의 녹색농촌체험 준비

치목마을 임재훈

우리의 삶이 심화된 경쟁 속에서 본래의 질적인 삶의 의미보다 숨막히는 생존의 짓눌림에 대한 반탄력 때문인지 요즘 웰빙이라는 말들을 종종 듣는다.

일부 영약스런 장사치들에 의해 왜곡된 면이 있다 하더라도 한 박자 느리게 정신적, 육체적 건강함을 지향한다는 흐름이 생긴 사실만으로도 이제 우리사회가 멀리 6.25의 폐허 속에서의 절대적 부족함 또는 절박함으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으로 다가온다.

어쩌면 지금의 40~50대들에겐 부모들의 고생하는 모습, 그 직·간접경험을 통해 우리 고향에 대한 기억은 지워버리고 싶은 고생으로, 그리고 힘들 때마다 돌아가 안기고 싶은 곳이라는 이중적 기억으로 많이 남아 있을 듯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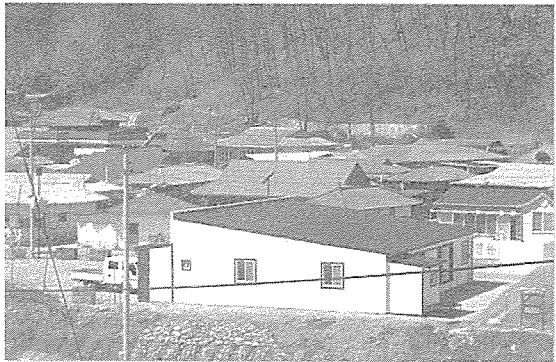
이제, 그 폐허 속에서 우리의 부모들이 맨손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중추세력들을 키워왔던 자연, 우리의 고향인 농촌은 웰빙의 근본적인 공급처로 다시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실상, 우리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굳이 들먹여가며 농촌의 경제적 자립을 운운하지 않는다 해도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보이지 않는 경제적, 정서적 혜택은 무궁무진하다.

도시와 농촌간의 상호보완적 의미로의 녹색농촌체험은 그러한 의미에서 각 고장마다 특색을 살린 자연, 인문환경에 맞게, 그리고 무엇보다 각 박해진 도시인들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기회가 되고 있으며, 많은 마을들의 성공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필자가 이곳 무주군 치목마을에 귀농인 아닌 귀농인으로 이주한 지 이제 어언 2년째. 이곳 치목마을도 녹색체험마을로 지정되어 긴 고요함에서 깨어나 이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덕유산국립공원내에, 무주 리조트에서 4km 떨어진 리조트형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였고 마을 뒷산은 단풍으로 유명한 적상산이 병풍처럼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 무엇보다 유동 관광객이 풍부해 녹색체험마을로서는 일단 접근성에서나 자연환경면에서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치목마을 삼베체험장>

지난해 KBS 6시 내고향, 프로그램을 백년가약 프로젝트의 도움으로 이곳 특산물인 삼베작업장을 이미 준공했고 농림부의 그린투어리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올해부터 마을 정비와 녹색체험마을사업을 시작했지만, (아마도 녹색체험관광을 추진중인 다른 마을에서도 비슷한 경우이겠지만) 150여 가구 주민 대부분이 60대 후반 노인들로서 농사 외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안타깝게도 사업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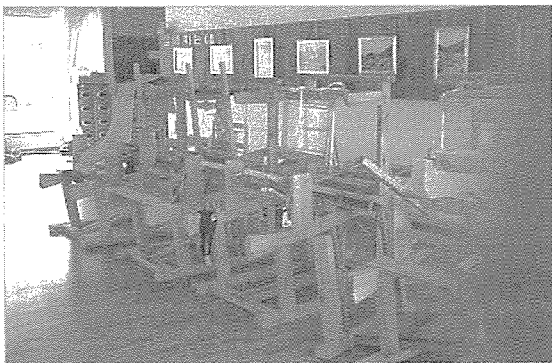
있는 상황이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분들인지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어렵게나마 농사를 지어 자식들을 키워왔고 경험이나 가진 것이라야 그것이 전부이니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혹 있을지 모를 실패가 줄 수 있는 작은 타격이라도 받아낼 여유나 자신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보수적인 분위기 때문에 외지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상업적으로 발달한 인근 관광지(무주 구천동)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등이 사업진행에 큰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에 대한 의존심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 등은 마을 발전을 위한 어떤 계획수립이나 자발적 실천마저도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형편이다.

때문에 사업추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드웨어인 시설인프라구축보다도 마을주민들의 인식 변화 즉,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시급히 선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삼베체험장 내부〉

사업추진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더 얘기하자면 마을의 소득수준 향상차원 때문만이 아니라더라도 마을의 연로하신 분들이 차츰 타계하신 후 다가올 마을의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하여 추진력 있는 젊은층을 마을로 끌어들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녹색농촌체험을 진행하는 다른 마을들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들로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분명한 것은 사업추진을 위한 많은 문제점들이 잘 해결되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기본원칙은 반드시 허덕이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닌 사업주체인 농민이나 현지인들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사업이 발전적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도 · 농간의 상호 호혜적인 교류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었을 때 우린 따뜻한 고향, 농촌과 자연으로부터 정서적 웰빙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도 다양한 현장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단법인 농업기술자협회 부설 도농녹색교류연구소의 도움을 받고 있어 우리 치목마을은 희망을 가지고 추진해 나아가고 있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조연을 기대해 본다.

언젠가 우리 치목마을에서도 아기의 울음소리가 낯설지 않게 되고 동네주민들과 마을을 찾아온 외지인들이 함께 어울려 막걸리와 산채나물을 앞에 놓고 살아가는 얘기들을 정감 있게 나누는 즐거운 상상을 해보며...



〈치목마을 옆 하천〉